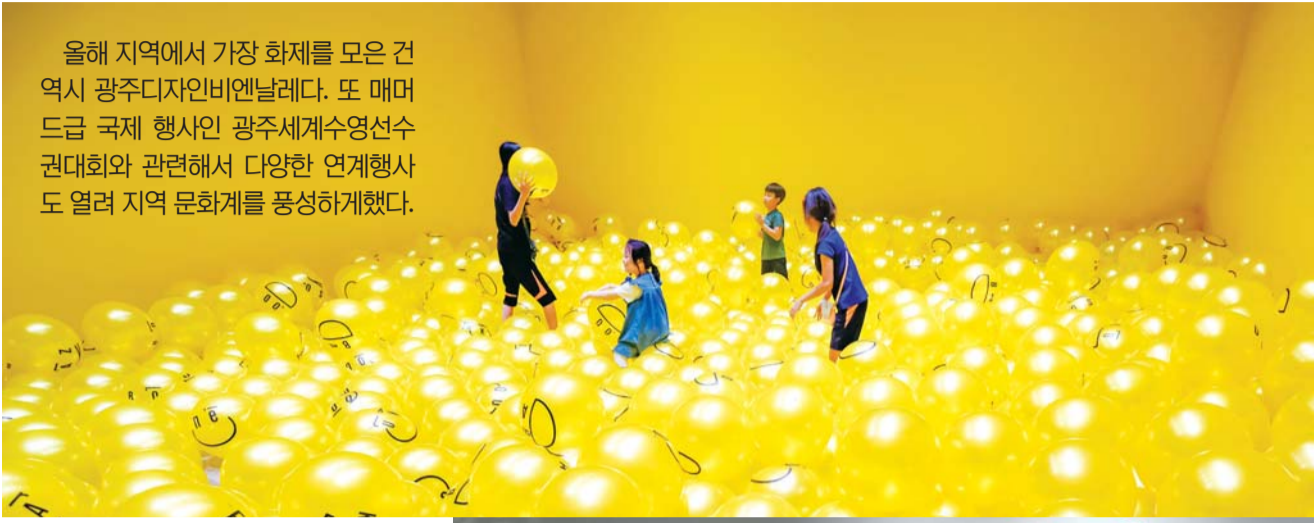


2019 문화계 결산 ① 미술

인간에 다룬 '디자인비엔날레' 대중성 높였다



올해 지역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건 역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다. 또 매머드급 국제 행사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계행사도 열려 지역 문화계를 풍성하게했다.

'휴머니티(HUMANITY)'를 주제로 열린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관람객들을 만났다. 50개국 650여 디자이너의 작품 1130여점이 전시된 올 디자인비엔날레는 관객들 눈높이에 맞춘 작품 등 '대중성'에 방점을 찍은 전시 구성으로 눈길을 끌었다. 관람객들의 호응도 이어져 지난 행사 27만명보다 늘어난 32만명(본전시 9만5000명)이 관람했으며 일반 관람객 비율이 전체의 70%를 차지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키스미크로스의 '볼. 룸 Ball. room'은 인기를 모았으며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은 화제의 중심이었다.



관객 참여 'Ball. room'·'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 등 인기 세계수영대회 기념 지역작가 13인전 'DIVE IN TO YOU' 눈길 '맛있는 미술관' 관람객 호응 ... 새로운 문화공간·창작그룹 탄생

광주세계수영대회는 '문화'가 또 하나의 중심이었다. 대회 조직위원회와 광주일보사가 은암미술관에서 7월 한달간 진행한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기념 청년작가 13인전'은 지역 청년작가들을 세계에 알린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DIVE IN TO YOU'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신호준·임현재·양나희·윤준영·이인성·박인선·박성준·선영현·노여운·설박·양세미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들이 총출동했다. 또 하이 다이빙 경기가 열렸던 조선시대 미술관에서는 '물, 생명, 상상력'을 주제로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김인경 작가가 참여한 전시회가 열렸다. 광주 대표 전시 공간인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다양한 기획전을 진행했다. 가장 인기를 모았던 전시는 8만여명이 다녀간 '맛있는 미술관' 전이었다. '미향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 음식과 맛을 소재로 등 20명의 작가를 초청한 전시에서는 주먹밥, 흥어 등이 모두 작품의 소재가 됐으며 '영흥식당'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다. 또 이현세·강필작 등이 참여한 '만화로 보는 대한민국', 호남미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의재, 산이 되다-연진화로 이어진 의재 정신과 예술'전, 오지호의 대표작 '남향집'을 포함해 김한기 등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70점을 공개한 '남도미술-뿌리'전도 눈길을 끌었다. 또 올해 처음 시작된 '미술관 아카데미',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미술기행' 등 인문학 강좌들도 인기를 모았다. 지난 1982년 개관, 서른살을 맞은 조선시대미술관의 행보도 의미있었다. 개관을 기념해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 등에서 열린 '찰나의 빛, 영원한 색채, 남도'전에서는 김보현·오지호·전경자·백영수 등 미술학과 창설교수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지역 기획자들이 참여한 다양한 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재)예술경영센터가 지원하는 '작가미술장터'는 지난해에 2개에서 올해는 4개로 늘었다. 담빛예술창고에서 열린 '예술산책:길에서 만난 예술'전, 미디어 아트 전문 장터 '미디어아트 X페어',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 '아트앳 홈:리얼-작가의 방' 등이다. 새로운 문화공간과 창작 그룹의 탄생도 의미있었다. 2010년 문을 닫은 담양 해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열린 2019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대중성 있는 기획으로 인기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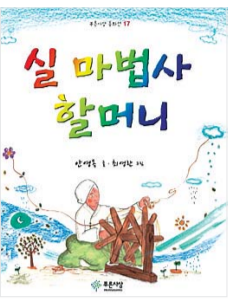
▼광주시립미술관 전시 중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맛있는 미술관' 전.



전'등도 관심 높은 기획이었다 지역 작가들의 해외활동도 활발했다. 파리에서 활동중인 민정연 작가는 국립기대 동양박물관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으며 서양화가 진원장 교수가 베를린 마이클스츠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개최했다. 또 이이남 작가는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2019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에서 대표작을 엮은 '뿌리들의 일어섬'을 상영했다. 반가운 수상 소식도 있었다. 서양화가 우재길 화백이 창원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을 기리는 '문신미술관 본상'을 수상했으며 선배들이 수여하는 '제17회 광주미술상'은 서양화가 이인성이, 신세계미술상은 하우주 작가가 받았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예술이 주최자로 나선 '광주아트페어'는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판매액 면에서는 18억 5000여 만원의 판매액을 기록, 예년보다 성과가 있었지만 주먹구구식 운영 등 무엇보다 10년이나 진행된 행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역시 아트페어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광주아트페어의 개최 주체, 방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광주폴리'역시 기존 폴리의 평가·활용방안 모색 등과 함께 2020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안영옥 동화작가 '실 마법사 할머니' 출간

광주일보 신춘문예(1999년) 출신인 안영옥 동화작가가 '실 마법사 할머니' (푸른사상)를 펴냈다. 작품은 옛날 선조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었는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길쌈'이 일신인 실 마법사 할머니가 한 울 한 울 옷감을 짜듯 조곤조곤 들려주는 이야기는 잊혀져가는 옛것의 소중함과 전통의 숨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인공 실 마법사 할머니는 두 손자 민수와 민재와 함께 산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재일교포인 어머니와도 헤어진 손자들을 맡아 기른다. 할머니네 집은 옛기도 만들고, 매주도 쉰는, 전통적인 한내가 가득한 집이다. 신기한 것은 할머니가 삼을 삼고 실을 뽑아 삼베를 짠다는 것이다. 동화에는 의젓한 모범생 민수, 천하의 말쑥꾸러기 민재, 이 형제에게 토크하면 시비를 거는 '시비 보이' 동식이 있다. 민수는 동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따지다가 동식아와 한판 주먹다짐까지 한다. 그런데 그날 동식아가 자랑하던 최신 휴대폰이 사라지고 민수는 범인으로 의심을 받



는다. 민수는 억울하기만 한데, 선생님까지 민수를 믿어주지 않는다. 동화는 아이들의 일상은 물론 하루 종일 길쌈을 하는 할머니의 삶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물레를 돌리고 베를 짜며 흥얼거리는 할머니의 길쌈 노래 가락은 아이들에게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의 향기는 물론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안 작가는 "우리의 옛것 가운데 옷이라는 한 종류만이라도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작가는 광일문학상, 2018년 광주·전남 아동문학인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집 '뚝뚝', 동화가 놀러 왔어요'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지역 청년작가들의 '또 다른 가능성'

갤러리 리채, 31일까지 공모 선정 작가 14명 참여 전시

갤러리 리채(광주시 남구 제석로 12 록 하빌딩 지하 1층)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는 청년작가 공모전을 진행해왔다. 매년 4명의 작가를 선정해 창작 지원금 200만원과 전시 공간 제공, 홍보 등 전시 지원을 통해 젊은 작가들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도록 격려했다. 첫해인 2016년 이선희·이인성·노여운·채지은 작가가 선발된 데 이어 지금까지 이태희·호준·솔채·조현택·김미지·김은지·최나래·정마음·김소진·고미음·조희늘·하승완 작가 등 모두 16명의 작가들이 이름을 올렸고, 모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갤러리 리채(관장 오병현)가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또 다른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예술적 성과를 살펴보는 기획이다. 전시에는 이선희·호준·솔채·김소진 작가를 제외한 14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갤러리 리채가 현재의 공간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전시다. 갤러리



이태희 작 '원생-生 I'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